

오네시모: 형제로 맞아들여지다

오네시모에 관해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간청의 중심인물이며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편지는 그가 도망자였다고 확정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도 서술하지 않습니다.

간청에서 시작하기

바울은 오네시모를 매우 개인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를 돌려보낸다고 말합니다. 잘못이나 빚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도 제안합니다. 이 진술들은 앞선 이별의 경위를 서술하거나 절도를 확정하거나,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에게 왔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익숙한 도망 노예 이야기는 재구성이며 빌레몬서에 직접 서술된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 참조: 몬 1:10-19

출처: letters

불평등한 세상에서의 형제 관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노예라는 범주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 관계를 통해 기존 관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를 직접 선포하거나 법적 해방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읽기는 노예제의 폭력을 인정하고, 편지에서 사회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착취에 대한 승인으로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성경 참조: 몬 1:15-21

출처: letters

연결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기록

골로새서는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그를 수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겹치는 이름들은 두 편지를 연결하지만, 한 번에 발송되었다거나 두 사람이 동일한 전달자 역할을 맡았다거나 특정 경로와 감옥 도시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재구성이 열린 상태로 남아 있어도 실천적 도전은 분명합니다. 환영은 해로운 대우를 그대로 둔 채 다정한 말만 건네는 일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성경 참조: 골 4:7-9 · 몬 1:17-21

출처: letters

출처

-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https://ebible.org/web/>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onesimus>